



<b>코스피</b> 3068.82 (+8.55)	<b>코스닥</b> 1003.27 (+1.81)
<b>금리 (미국 3년)</b> 1.593 (-0.010)	<b>환율 (원-달러)</b> 1184.00 (+2.20) (9월30일)



[경제종합]  
삼성전자  
美에 20조 투자 초읽기  
'초격차' 시동  
03

### m-커버스토리

## 2021 하나은행 신입행원 벵바리 수료식



하나글로벌캠퍼스 신입행원 멘토링 프로그램 '벵바리 활동'을 수료하는 모습. /하나금융그룹

# 공정성 찾아 저생으로 이생망 MZ '유토피아'

(이번 생은 망했어)

###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금융사

“산업사회의 정권들. 나는 새로운 마음의 고향 사이버공간에 왔노라. 우리에게는 우리가 뽑은 정부가 없으며 갖고 싶지도 않다. 나는 자유가 명하는 대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가 세우려는 전 지구적 사회 공간은 너희가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는 독재와는 무관하다. 너희는 우리를 지배할 도덕적 권리가 없다. 우리는 너희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너희들은 그 두려움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사이버스페이스 독립선언문 (A Cyberspace Independence Declaration) 중에서)

금융권, MZ세대와 소통 통해 고객 확보·가상경제 진입 가속  
편견·제약없이 아이디어 평가 CEO-직원 수평적 소통 가능

바야흐로 메타버스의 시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 문화가 확대되면서 하나둘씩 메타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금융권도 그 중 하나다.

〈관련기사 4면〉

다만 이들의 목적은 자유를 찾기 위해 나선 그들과는 다르다. 이들의 목적은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와 소통을 통해 고객을 확보하고, 가상경제로의 진입을 가속화해 수익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메타버스(Metaverse)는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를 말한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는 미국

에서는 로블록스(Roblox)와 포트 나이트(FORTNITE)가, 국내에서는 제페토(ZEPETO) 등이 주목을 받고 있다.

### ◆ '이생망' 현실세계와 달라... 메타버스에 올라타는 MZ세대

그렇다면 MZ세대가 메타버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의 이유는 한가지 맥락으로 통한다. '공정성'이다. 이생망(이번생은 망했어)의 줄임말)을 외치던 그들이 메타버스 속에선 원하는 대로 세계를 구성하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메타버스에서는 현실세계의 편견·제약 없이 내 아이디어와 실력 등을 평가받을 수 있다. 제작한 옷을 아바타에 입히거나, 제작한 음악을 공개할 수 있고, 이를 유료 콘텐츠로 판매할 수 있다. 단순히 개발자가 만든 플랫폼에서 콘텐츠만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바텀업(Bottom-up)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현실속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환경, 사람을 접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공간을 초월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콘서트를 들을 수 있고, 대화를 나누는 것도 가능하다. 너무 오래전에 해서, 혹은 너무 비싸서 듣지 못했던 세미나, 맞춤형 관리 프로그램이 있다면 메타버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 ◆ MZ세대와의 소통, 그 이상을 꿈꾸는 금융

이에 따라 금융권은 현재 메타버스 내 인프라를 구성해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베일 벗은 제네시스 전기차 'GV60' 글로벌 공략

# 얼굴로 문 열고 지문으로 시동전다

제네시스 '디지털 월드프리미어' 장재훈 브랜드 사장  
"전동화 대표 첫 전용 전기차 역동적 디자인, 파워풀 주행"

제네시스 브랜드가 글로벌 글로벌 자동차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건다.

제네시스는 코로나19에도 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 판매량이 급증하며, 글로벌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8월 현대차그룹 자동차 브랜드 중 유일하게 제네시스만 미국 시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제네시스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제네시스는 지난 7월 첫 전동화 모델인 G80 출시를 시작으로 최초 전용 전기차 모델인 GV60을 공개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 공략을 위해 프리미엄 전기차 라인업 확대에 완성차 업체와의 경쟁에 나서기 위함이다.

30일 제네시스는 'GV60 디지털 월드프리미어' 행사를 열고 GV60의 디자인 철학과 주요 상품성을 소개했다. 이날 장재훈 제네시스 브랜드 사장은 "GV60은 제네시스 브랜드 전동화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첫 전용 전기차 모델이자,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을 보



제네시스 G80 전동화모델 전측면.

/양성운 기자

여주는 모델"이라며 "파워풀한 주행 성능과 함께 운전자와 교감하는 다양한 핵심기능을 통해 럭셔리 전기차의 새로운 기준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GV60은 전용 전기차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제네시스의 첫번째 전기차로 후륜·사륜·퍼포먼스 모델로 선보인다. 3가지 모델 모두 77.4kWh 배터리가 장착되며 스탠다드 후륜 모델 기준으로 1회 충전 시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51km다. 스탠다드 사륜 모델은 합산 최대 출력 234kW, 최대 토크 605Nm이며 1회 충전 최대 주행 가능 거리는 400km, 퍼포먼스 모델은 합산 최대 출력 320kW, 최대 토크 605Nm, 1회 충전 거리 368km의 동력 성능을

갖춰 운전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고객까지 만족시키는 라인업을 완성했다. 특히 퍼포먼스 모델은 부스트 모드를 적용해 10초간 최대 합산 출력이 360kW까지 증대되고 4초만에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에 도달하는 강력한 주행 성능을 경험할 수 있다.

GV60의 판매 가격은 스탠다드 후륜 모델의 경우 5990만원, 스탠다드 사륜 모델은 6459만원(19인치 기준), 퍼포먼스 모델은 6975만원이다. GV60은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쿠페형 CUV 스타일의 날렵하고 다이내믹하면서 가장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고성능 EV 이미지를 강조했다.

(3면에 계속)

/양성운 기자 ysw@

##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 민생회복 주력”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월말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지급”

10월부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가 시작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손실을 보상하고,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해 경제를 먼저 살리겠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2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10월 중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방역·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하겠다”며 “같은 달 말부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 보상액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의 시작을 공식화한 셈이다.

홍부총리는 4분기를 우리 경제 회복에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며 ▲본예산·추경(추가경정예산)의 효율적 집행 ▲민간 투자 활성화 등을 4분기 정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역량을 집중할 분야로 꼽았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등으로 빠르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공통 인식 하에 관리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오늘 추가 점검을 거쳐 보완한 이후 그 관리 방안을 10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최대한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내 경제·금융 상황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비교적 견조한 회복 흐름을 보여 왔으며 앞으로 백신 접종률 제고 등으로 이러한 기조는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거시·재정 금융 정책들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취약부문 지원을 위해 적극 작동되도록 하고 그간 누적된 금융 불균형에 따른 부작용 완화 방향 점검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0월 집단면역 형성 모멘텀을 계기로 근본적으로 방역과 민생이 함께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 방향성 점검과 위기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 조치의 연착륙 가능성 등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중앙지검, '고발사주 의혹' 공수처로... "검사 관여 사실"  
▲ 김정은, 국무위원회 2기 체제 출범... 김영재 사실상 외교 대표 /사진 뉴시스

▲ 윤석열 측 '치매 환자' 발언 논란에 "국민께 송구"  
▲ 이재명 측, 유동규 금품수수 의혹에 "李도 관리자로서 책임" /사진 뉴시스



▲ 김오수 검찰총장 '대장동 수사' 첫 입장... "여야 막론하고 엄정수사"  
▲ 이준석 "이명박도 BBK특검받아... 이재명도 특검받아" /사진 뉴시스